



■ 응답하라 20대국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응원 영상 시리즈 홍보 보도자료 (2019. 8. 14.)

#출신학교 차별은 사망선고 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응답하라 20대국회! 영상 시리즈 10부작>을 완성, 유튜브에 업로드함.
-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오영훈·홍영표·윤관석 의원, 오찬호 작가, 이범 교육평론가, 박도순 교수,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하종강 교수,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등은 이 영상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통찰력있는 담론을 제시함.
- ▲ 이 캠페인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시민들과 공감, 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함.
- ▲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가 늘어날수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응답이 더 빨리 들려올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활동의 일환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응답하라 20대국회! 영상 시리즈 10부작’을 완성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20대 국회의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출신학교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법제정을 필요성을 알리는 의도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응원영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오영훈·홍영표·윤관석 의원, 오찬호 작가, 이범 교육평론가, 박도순 교수,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하종강 교수,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등이 기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신학교 차별에 대해 퇴보, 공공의 적, 악법, 사망선고, 인권침해, 21세기의 야만, 불의 등의 단어로 정의를 내리며 통찰력있는 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출신학교 차별은,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의 변화에 역행하는 ‘퇴보’이며, 19세까지의 학업 성적으로 인생을 단죄하는 ‘사망선고’와도 같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각기 다른 이름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10여 개나 발의되어 있고,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155명에 달합니다. 이는 20대 국회 또한 출신학교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4년째 이들 법안은 제대로 논의된 바 없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하기에 이 영상의 구독과 조회수가 올라가고, 반응이 뜨거울수록 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향한 국회의 응답이 조속히 들려올 것입니다. 업로드된 이 영상에 대해 많은 시청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오피니언 리더들은 각각 “#출신학교차별은 00다”에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바로 아래를 클릭하세요.

응답하라 20대 국회! #출신학교차별은 **악법**이다.

응답하라 20대 국회! #출신학교차별은 **불의**다.

응답하라 20대 국회! #출신학교차별은 **구시대의 산물**이다.

응답하라 20대 국회! #출신학교차별은 **정의 구현**다.

응답하라 20대 국회! #출신학교차별은 **교육을 퇴행 시킨**다.

응답하라 20대 국회! #출신학교차별은 **사망선고**다.

응답하라 20대 국회! #출신학교차별은 **퇴보**다.

응답하라 20대 국회! #출신학교차별은 **야만**이다.

2019. 8.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중(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